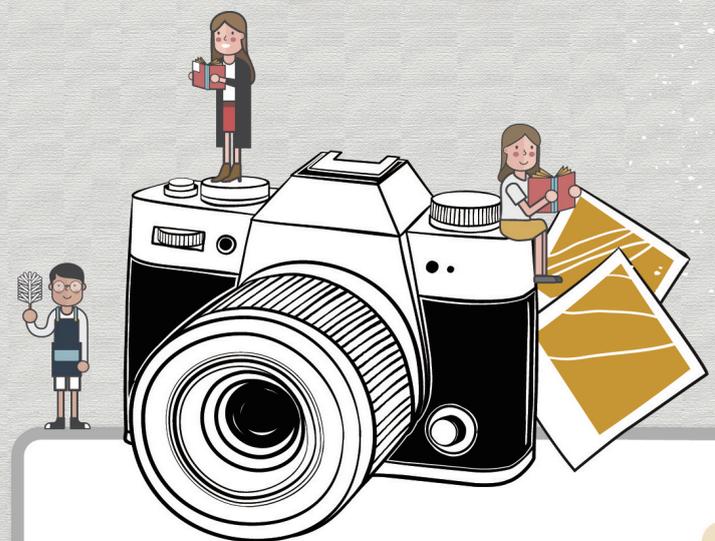




2018 도서관 사진 공모전

도서관, 나만의 소확행 (小確幸)

응모기간_ 2018.09.12.(수) ~ 10.17.(수)



응모주제
우리 대학 도서관과 책,
독서를 소재로 한 모든 주제

참가대상
학부 재학생 (휴학생 불가)

참가방법
이메일 접수 (photo@library.pusan.ac.kr)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상훈	비교과 마일리지
1등	1명	50만원	총장 표창	20점
2등	2명	각 30만원		
3등	5명	각 10만원	도서관장 표창	
가작	20명	각 5만원		

- 응모방법**
- 01 사진파일(JPG, JPEG 형태로 긴 면 기준 3,000픽셀 이상) 제출
※ 컬러, 흑백사진 모두 가능
 - 02 파일명 : '사진이름_제출자명(학번)_촬영날짜(년월일)'
※ 사진의 배경 및 인물, 상황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 첨부
※ 제출자는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03 1인당 2점 이내 응모 가능
※ 타공모전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만 응모 가능
 - 04 촬영기간 : 2017년 10월 18일(수) ~ 2018년 10월 17일(수)

- 결과발표** 2018년 11월 중
- ❏ 최종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참가자 전원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5점 지급
 - ❏ 문의_ 도서관 자료조직팀(051-510-1825)

수상작은 도서관 사진전에 전시 예정이며,
공모전에 접수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도서관에 귀속됩니다.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2018년도 부산대 도서관 ACE+ 사업
- 06 특집 기사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 집중 조명
- 10 사서추천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 12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4 아름다운 서터뷰 전자자료이용박람회 및
신입생 도서관 이용 이벤트 참여자 인터뷰
- 16 여기 issue 재활용에 관한 도서 소개
-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단대별로 대출된 도서 Best 5
- 20 #발견 #이곳 부산 내 이색 중고서점 탐방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18. 10. 02
 편집 정재훈, 전태경, 최덕수, 강승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onbin9@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200% 이용하기

부산대학교 도서관 ACE+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의 일환으로 <책 읽는 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책 읽는 대학 사업>은 대학생 스스로 독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독서관련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기본 교양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통합형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 그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올해의 <책 읽는 대학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

평소 관심있거나 궁금했던 작가, 발명가, 기업인,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전문가)을 직접 만나 창작, 발명의 배경이 된 지식과 경험은 물론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아내도록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독서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재학생(팀 모집으로 1팀당 2~3명 구성)

신청기간 | 2018. 09. 03.(월) ~ 09. 14.(금)

신청방법 | 부산대 스마트 학생지원시스템 ▶ 비교과 ▶ 참가신청 ▶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신청서 제출)

선정대상 | 총 8팀

선정발표 | 2018. 09. 21.(금)

독서지원 | 1팀당 50만원

제출서류 | 독서활동 일지, 경비정산서, 최종보고서
우수팀 시상

구분	수상팀	상금	상훈	비고
최우수상	1팀	50만원	총장 상장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우수상	2팀	20만원		
장려상	5팀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독서력 UP 독후감 공모전

도서관에서 무료 배포하는 도서(10종) 중 1권을 수령하고 자유롭게 독서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는 공모전이다.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동기 부여와 더불어 책을 읽은 후 글로 써보는 돌아보기 과정을 통해 독서수준 증진 및 인문학적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참가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생(재학생)

신청기간 | 2018. 09. 10.(월) ~ 10. 20.(토)

응모방법 | 도서관 무료 배포 도서 수령(1인 1책) ▶ 자유롭게 독서 한 후 독후감 필수 제출 (지정 양식 제출)

도서수령 | 중앙도서관 3층 기획홍보팀(선착순 배포)

제출방법 | 부산대학교 스마트 학생지원시스템 ▶ 비교과 ▶ 참가신청 ▶ 독후감공모전

독서지원 | 1팀당 50만원

시상내역 총 8편

구분	수상팀	상금	상훈	비고
최우수상	1팀	50만원	총장 상장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우수상	2팀	20만원		
장려상	5팀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도서관 사진 공모전

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에서 찾는 나만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사진을 통해 교내 구성원과 공유하고자 한다.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사진전시회도 함께 개최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5점을 지급하는 공모전이다.

응모주제 | 우리 대학 도서관과 책, 독서를 소재로 한 모든 주제

참가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재학생(휴학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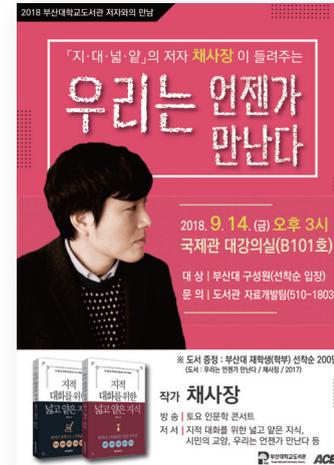
응모기간 | 2018. 09. 12.(수) ~ 10. 17.(수)

참가방법 | 이메일 접수(photo@library.pusan.ac.kr)

응모방법 | 사진촬영 ▶ 사진파일 제출(1인당 2점 이내 응모 가능)

시상내역

구분	수상팀	상금	상훈	비고
1등	1명	50만원	총장 상장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2등	2명	각 30만원		
3등	5명	각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가작	20명	각 5만원		



저자와의 만남

유명작가 또는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명사를 초청하여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작가의 작품세계 및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대학생 스스로 독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3점을 지급한다.

| 작가 채사장편 |

개최일시 | 2018. 09. 14.(금) 15:00 ~ 17:00

개최장소 | 국제관 대강의실(B101호)

참여대상 | 부산대 구성원(선착순 입장)

※ 부산대 재학생(학부) 선착순 200명에게 도서 증정 (도서: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 채사장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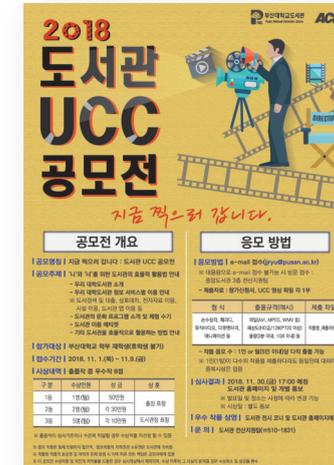
| 만화가 박시백편 |

개최일시 | 2018. 11. 16.(금) 15:00 ~ 17:00

개최장소 | 국제관 대강의실(B101호)

참여대상 | 부산대 구성원(선착순 입장)

※ 부산대 재학생(학부) 선착순 150명에게 도서 증정 (도서: 조선왕조실록 인물 사진 / 박시백 / 2015)



도서관 UCC 공모전

<지금 찍으러 갑니다: 도서관 UCC 공모전>은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서관 자원의 활용법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링크하여 교내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공모전명 | 지금 찍으러 갑니다. 도서관 UCC 공모전

공모주제 | '나'와 '너'를 위한 도서관의 효율적 활용법 안내 · 우리 대학도서관 소개, 우리 대학도서관 정보 서비스별 이용 안내 등

참가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재학생(휴학생 불가)

공모기간 | 2018. 09. 10.(월) ~ 11. 09.(금)

접수기간 | 2018. 11. 01.(목) ~ 11. 09.(금)

응모방법 | e-mail 접수(jjryu@pusan.ac.kr) ※ 부산대 재학생(학부) 선착순 200명에게 도서 증정

구분	수상팀	상금	상훈	비고
최우수상	1명(팀)	50만원	총장 표창	비교과 마일리지 최대 20점
우수상	2명(팀)	20만원		
장려상	5명(팀)	10만원	도서관장 상장	

효원 감동 나눔 책 읽기 전시회

부산대 학생 도서추천 프로그램인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와 추천글을 전시하여, 책 읽는 즐거움과 감동을 공유하는 전시회이다. 이용자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시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도서관과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하였다.

전 시 명 | <효원 감동 나눔 책 읽기> 전시회 - 여섯 번째 이야기

전시기간 | 2018. 10. 1.(월) ~ 26.(금)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상설 전시 코너

내 용 | 2017년 2학기 및 2018년 1학기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100종 및 추천글 전시

문학기행

우수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책 속 인물과 배경이 된 지역을 답사하고,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문학기행은 총 2회로 계획 중이며, 책 읽기, 글쓰기, 토론 등 책을 매개로 참가자 간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 비교과마일리지 10점을 지급한다. ACE+ 독서 프로그램 관련된 문의 사항 또는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기획홍보팀(051-510-1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일시 및 장소 | 미정(2학기 시행 예정)

ACE+ 독서 프로그램 관련된 문의 사항 또는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기획홍보팀**(051-510-1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에 대한 A to Z

Science Fiction(SF)라고 하면 그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소설(SF)이 과학현실(Science Fact)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맞아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제1회 김진재 SF 어워드”라는 이색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삼 (주)DRB동일 대표이사, 김세연 국회의원, 전호환 부산대 총장, 문승필 동일고무벨트(주) 대표이사

“김진재 SF 어워드”의 시작

지난 1월, 부산대학교는 금정구 국회의원인 김세연 의원, 지역기업인 (주)DRB 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와 공동협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 및 SF창작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 및 부산대 학생의 과학분야 독서와 창작물 개발 등 과학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대와 협약 주체들은 향후 SF 분야 창작콘텐츠공모전 개최, 지역사회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하는 과학 독서 아카데미 개설·운영 등을 통해 지역 과학인재 조기발굴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에서의 첫 사업으로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김세연 국회의원과 (주)DRB동일 및 동일고무벨트(주)가 부담, 사업주관은 부산대 도서관과 (주)DRB동일 기업문화팀이 맡고 있다. 또한 사업 권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과학·언론 분야 등 전문가를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진재 SF 어워드”의 김진재(金鎮載)는 누구인가?

고(故) 김진재 의원은 이번 사업을 지원하는 김세연 국회의원의 부친이다. 부산대 화학공학과에서 수학한 그는 부산의 기업가이자, 부산대학교가 소재한 금정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가이다. 생전에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을 통해 미래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따서 “김진재 SF 어워드”로 하였다.

故 김진재 의원
1943 ~ 2005



DRB

1945년에 창립한 DRB는 국내 최초로 고무벨트 국산화를 성공시키며 국내 산업용 고무산업을 이끌어 왔다. 이후 끊임없는 혁신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해 온 DRB는 고무산업에서 미래첨단산업으로 진화하며 전 세계 산업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drbworld.com>

Campus D

Campus D는 1995년 동일고무벨트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교육을 위한 복지관으로 건립되어 2017년 고촌 김도근 창업 회장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DRB 사회공헌플랫폼으로 재탄생 하였다.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는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 문화의 공간이다. Campus D는 공연장, 포럼장, 연습실 등 다양한 컨셉의 공용공간을 개방하여 모든 시민들의 창의적,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 상주, 협력의 형태로 청년스타트업, 사회적기업, NGO, 문화예술단체 등과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drbcampusd.com>

PNU SF Day

지난 8월 “김진재 SF 어워드”의 홍보 및 공모전 참여자들에게 SF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SF 관련 자료 전시회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겸한 「PNU SF Day」를 개최하였다.



강연회 - SF를 만나다

“SF를 만나다”는 8월 11일 (토) 14:00 ~ 18:00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하였다. 1부 강연으로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창환 교수의 “영화 컨택트(Arival 2016) - 지성과 감성적 SF의 만남”을, 2부 강연으로 한국SF협회 박상준 회장의 “SF로 전망하는 미래의 모습”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대 학생, 지역주민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SF도서를 증정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전시회 - SF로 상상하다

“SF로 상상하다”는 8월 6일(월) ~ 8월 14일(화)까지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된 전시회이다. SF분야 및 과학분야 도서자료 600여 종, DVD 100종, SF영상자료 등을 전시하여, SF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김진재 SF 어워드 로고

김진재 SF 어워드의 로고는 “김진재”의 초성인 ㅊ ㅈ ㅉ 자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 초성의 조합을 자전거 형상으로 나타내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해나가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과학분야의 컬러를 나타내는 블루 컬러와, 공모전의 참신함을 나타내는 퍼플 컬러를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김진재 SF 어워드 홈페이지 | <http://kjsfaward.pusan.ac.kr>

계속되는 상상의 페스티벌

“김진재 SF 어워드”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차 예선 접수를 진행, 1차 예선 심사, 본선대회 및 최종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문학분야> <영상분야> <그림분야> 총 3개의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많은 학생과 성인이 참여하여 SF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진재 SF 어워드”는 매년 개최될 예정으로, 2019년에 개최될 “제2회 김진재 SF 어워드”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효원인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도서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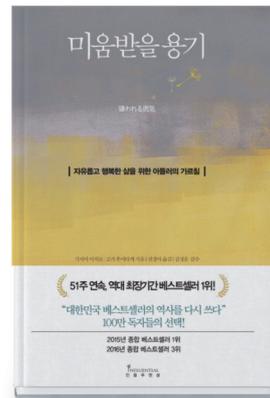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매주 1권씩 “사서 추천 도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고 추천한 아래 4권의 도서들을 통해 책으로 더하는 감동을 효원인과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 인플루엔셜 / 2014 / 331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158.1 안14ㅎ한] 추천사서 | 자료조직팀 임정희

행복한 나를 위하여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라니?’ 역설적인 제목에 눈길이 끌려 책을 쥐게 되었다. 지금껏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보다도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신경을 쓰며 남들과 비교하며 주눅 들었다. 왜냐면 세상에는 대단한 ‘엄친아’들이 많기 때문이다. 타인과 비교하면 남들에 비해 모자라는 내 모습에 좌절을 느끼고 끝내는 스스로를 미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칭찬보다는 채찍질을 가하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미래에 나아질 나를 생각하며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시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모자란 자신에 대한 채찍질보다 모자람을 인정하고 도리어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타인의 인정욕구라 불리는 남의 시선을 포기하고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나, 미래의 나보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집중해 자립하라고 한다. 또한 나에 대한 집중은 개인으로서의 자립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협조로 나아가길 요청한다. 이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공동체에 공헌하는 삶을 말한다.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타인을 위한 나보다 나와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아카시아

황학주 / 생명의 나무 / 2005 / 236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4 활91ㅇ] 추천사서 : 자료조직팀 김명숙

자연과 생명이라는 대지에 선 우리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당당하기를 바란다.

「아카시아」는 황학주 시인이 아프리카 마사이에 헌정한 에세이집이다. 시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뉴질랜드, 캐나다 인디언 거주지 등 세상의 여러 곳을 ‘국제봉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그 마지막 3년을 머물렀던 아프리카 마사이들의 눈물겹도록 순박하면서도 웅장스러운 일상과 그들의 고통을 낮은 음성으로 담담하게 엮고 있다. 마사이종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마른 강의 여기저기 걸쳐진 누각과 관목의 뿌리들이 상큼하게 기운 차리고 일어날 듯 싱그러운 물길에 내리는 풍경도 만나고 칼리만자로, 방목하는 소 떼들, 여인들과 그들이 만든 아름다운 구슬과 갖가지 장식과 목 조각들,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과 끝없이 너른 들판에 드문드문 늘어선 아카시아까지 챙겨 넣은 이상운(사진작가)의 사진은 마사이의 또 다른 매력으로 어떤 영상보다 감동적인 순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자도 갖지 못한 마사이 오지에서 말과 이미지로만 그 세계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저자는 자연과 생명이라는 대지에 선 그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당당한 걸음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그런 현실의 각박한 문제들이 얽힌 아프리카지만 여전히 자연은 아름답고 사람들은 순박해 응고공고로의 흥학과 얼룩말, 암보셀리 국립공원의 부드러운 언덕, 마사이마라와 세렝게티를 질러가는 누 떼들과 사슴들의 장관을 읽을 수 있어 더없이 싱그러운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문체, 다감한 눈길로 아프리카를 바라본 저자의 시선이 무엇보다 깊은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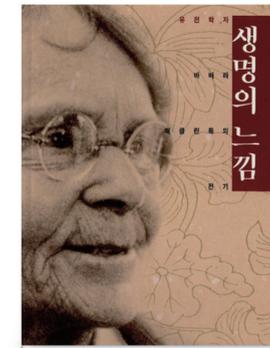


생명의 느낌 : 유전학자 바바라 매클린톡의 전기

이블린 폭스 켈러 / 양문 / 2001 / 369P.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576.59092 K29f한] 추천사서 : 자료조직팀 김미선

애정과 공감의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이야기

최근 방송 일독신잡2에서 유시민이 딸을 생각하며 고른 책으로 ‘랩걸’이 화제에 올랐었다. 예쁜 삽화와 함께 호프 자런이라는 여성과학자의 삶을 다룬 ‘랩걸’을 읽으며, 나는 바바라 매클린톡이 저절로 떠올랐다. 옥수수 연구로 유명한 유전학자 바바라 매클린톡의 전기를 담고 있는 ‘생명의 느낌’을 소개한다. 동료 연구자였던 이블린 폭스 켈러가 매클린톡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폭 넓게 인터뷰하여 엮은 책으로 바바라 매클린톡의 어린시절부터 노년기까지의 삶을 다루고 있다. 그녀가 과학자로서 타고난 재능은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 느낌에 의해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그녀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알아챈다고 했었다. 그녀의 이런 타고난 통찰능력은 그녀가 가진 연구 대상에 대한 애정과 끈기가 없었다면 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실험과 논문을 꾸준히 썼고, 조그마한 변화도 놓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옥수수 발의 옥수수 한그루, 한그루를 모두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연구대상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이처럼 연구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교감이 과학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금 대학에서 공부 혹은 연구를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과정 중에 있을 효원인들이 바바라 매클린톡의 삶을 읽으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순수했던 열정을 다시금 되새기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정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 달 / 2012 / 1책
소장정보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6 0444ㅂ시] 추천사서 : 정보서비스팀 장은영

여행이 어떻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준 따스한 책

내가 만난 여행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은 이병률 작가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여행지의 정보나 감상 대신 ‘떠남’에 대한 흔적을 작가 특유의 섬세한 시선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사진과 자신의 감성을 일기처럼 써 내려간 기록서이다. 연애편지처럼, 고백서처럼, 때론 한 편의 시처럼 깊은 곳에서의 울림으로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은 여행은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울림에 따라 여행이 어떻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준다. 작가와 바람이 부는 대로 같이 가다보면 물어 두었던 아꼈던 사랑, 인생의 쓸쓸함, 무더지지는 상처 등이 되살아나 어찌면 왈칵 눈물을 쏟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은 목차도 없으며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고 집중해서 읽지 않아도 된다. 고단하고 지쳐있을 때 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스스로 넘기면서 마음을 끄는 사진과 글이 있다면 그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마음의 휴식이 되고 잔잔한 여운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어쩌면 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은 다녀온 후 다시 그곳을 찾아갈 수 있지만 삶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다른 점인 것 같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가슴 뛰는 일들을 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멋진 청춘들이 되기를 바란다.



조영래 재료공학부 교수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향후 나의 서재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밝은 희망을
더 많이 제시하는 이타적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은 자발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다.

서재라고 하면 책을 보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나는 나의 서재를 이력서라고 정의하고 싶다. 공과대학 교수인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서재는 바로 나의 연구실이다. 실험실과 달리 연구실은 내가 거의 매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내는 공간이다. 이 글을 통하여 나의 서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공간이며, 나의 서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며, 향후 나의 서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 KAIST의 석사과정과 Stuttgart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실험실원들과, Max-Planck 연구소와 KIST 및 ETRI 등의 연구소에서는 동료연구원들과 함께 넓은 공간을 공유했다. 교수님과 임원급 보직을 가진 사람들만이 독립된 공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서재를 갖고 싶어 했다. 나의 서재는 학교에 만 있고, 집에는 없는 편이다. 집에 있는 서재는 시급한 볼일이 있을 때, 일시적 업무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정도로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있는 나의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있는 나의 서재에서 보낸다. Nine to nine과 six days in a week가 나에게 잘 어울린다고 하겠다. 주말에도 몇 시간씩 학교의 서재에 출근하는데 익숙해 있다. 걸어서 출퇴근하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의 서재는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공간이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시급성의 순서대로 white board에 제목을 적어두고, 일을 끝내는

대로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는 나를 기분 좋게 한다. 이런 작은 재미 때문에 나는 자발적으로 나의 서재로 출근하는가 싶다. 성취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은 자발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다.

공과대학 교수의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폭이 넓다. 교수의 첫 번째 직무는 교과강의와 학생지도라고 하지만, 공과대학 교수는 연구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 역시 중요하지만, 연구과제의 발굴에 더 큰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료비와 함께 좋은 실험 장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능한 공과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강의, 대학원생 논문지도 및 연구과제 책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나의 서재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적 공간이다.

요즘 들어, 교수의 개인평가 기준에 있어서 산업적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과대학 교수는 강의와 교육의 전문가가 되어야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연구도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공과대학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연구과제에서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이유로, 공과대학 교수들은 대학원생이 너무 많으면 연구비가 모자라 걱정이고, 반대로 연구비가 갑자기 많아지면 대학원생이 모자라 고민이다. 이런 걱정, 저런 고민을 하는 공간도 바로 나의 서재이다.

서재에는 책꽂이가 있기 마련이다. 나의 서재에 있는 책꽂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보았다.

지금까지 수행한 각종 연구과제 관련해 찾아 읽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곱게 soft cover로 제본해 만들어 놓은 책자들이 1순위를 차지했다. 2순위는 강의준비 자료이고, 3순위는 이제까지 강의했던 강의록이 차지하였다. 여기서 볼 때, 연구 관련 논문을 읽는 것이 나의 서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공과대학 교수는 2,000편 이상의 전공관련 논문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주일 동안 논문을 1편도 읽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1달에 1편도 읽지 않으면 대학원생과 동료 교수들이 알고, 1학기에 1편의 논문도 읽지 않으면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차린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현재까지 나의 서재는 학생들과 면담하고, 강의 자료 만들고,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는 공간으로 주로 사용했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뭔가가 모자람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나의 서재에서 열심히 추구해 온 업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업무였을까? 연구업무에 너무 몰입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학생들의 요구에는 무심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끝으로, 향후 나의 서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종래의 나의 서재는 나의 이력서를 멋지게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집중했던 것 같다. 학생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무계획적으로 지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 글을 계기로, **향후 나의 서재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미래의 밝은 희망을 더 많이 제시하는 그런 이타적 공간으로 바꾸려고 조용히 다짐해 본다.**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신 교수님께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2018 저자와의 만남

「지·대·넓·얕」의 작가 채사장을 만나다.

도서관에서는 인문학 돌풍을 일으키며,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인문학 작가 채사장을 초청하여 지난 9월 14일 “저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43호에서는 채사장 작가 강연회에 참여한 2명의 학부생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았다.



“인간은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 채로 ‘실존’ 한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학의 매력에 빠진 남자! 아니, 채사장 작가님 덕분에 문학에 관심을 두게 된 대학생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열 한 계단을 읽고 채사장 작가님의 문체와 글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분이 부산대학교까지 오신다니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까지 빼고 왔습니다.

강연회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나요?

“인간은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 채로 ‘실존’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초청했으면 하는 저자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데니스 홍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싶습니다. 로봇공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인문학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분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직접 듣는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또는 작가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사장 작가님의 “열 한 계단”을 좋아합니다. 인생을 열 한 계단으로 두고 독자인 저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방식과 그 안에 담긴 가치관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 똑같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감명 받았던 점과 기독교, 불교의 교리를 둘 다 맹신도 부정도 하지 않고 종교의 교리로 본다는 점에서 생각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이번 강연회 제외)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했던 “고마워 우리 도서관”이라는 행사에 그간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이용후기를 남겼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근로장학생들과 사서 분들 그리고 경비담당 분들까지 고마운 마음을 담고 서비스에 대해서 적었는데 운이 좋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학교 도서관처럼 모두가 친절하게 응대주시고 깔끔한 곳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책상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이나 동선이 잘 보이는 곳에 놔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버리고 치우시는 분의 수고로움도 더는 깨끗한 도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어른’ 같은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접했을 때 본 강의가 인상적이어서, 실제 강연에서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 12학년 황은태입니다.

이번 강연회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요?

“채사장”이라는 분이 워낙 요즘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이라는 책이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유명한 분이 강연을 하신다니 기대도 되었고요. ‘어쩌다어른’ 같은 TV 강연 프로그램에서 접했을 때 본 강의가 인상적이어서, 실제 강연에서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강연 장소가 제 학부 건물인 점도 영향을 끼쳤네요.

강연회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감명 깊었나요?

“채사장” 작가님이 아무래도 실존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실존주의와 연계해서 소개해주시니,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물론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이해가 완벽하다시피 된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꼬리표처럼 달려있는 국가, 가정, 종교, 관습, 도덕 등의 ‘상징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뫼르소의 ‘태양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다른 초청했으면 하는 저자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을 쓰는 분이 강연을 하시는 장면을 상상한다면, “유시민”작가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글재주가 좋으시고, 쉽지만 통찰력 있는 글을 쓰시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그 분의 책을

빌리려면 예약을 한참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새삼 “유시민”작가님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또 워낙 말도 조리 있고 재밌게 잘 하시구요. 한마디로 인기스타이신데 요즘 “유시민” 작가님께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책 또는 작가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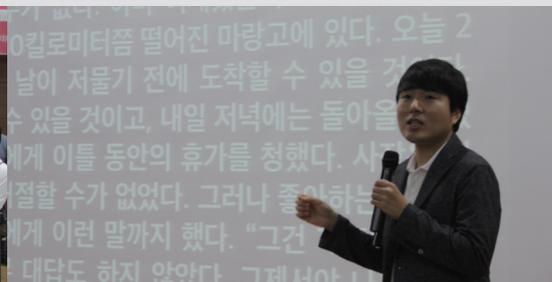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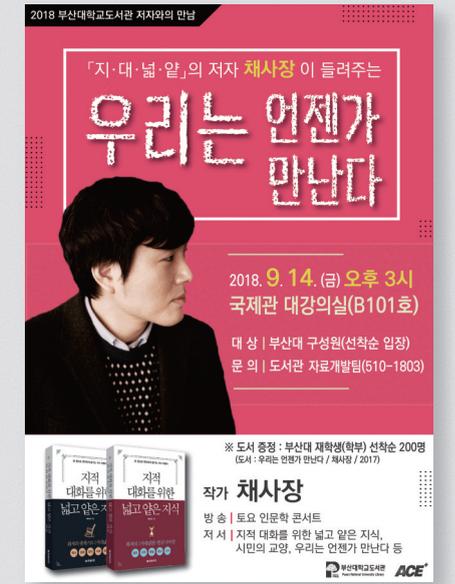
요즘에 꼭 빠진 책이 있어요. 저는 가끔씩 시집을 꼭 읽는 편인데요. “이훤” 작가님의 『너는 내가 버리지 못한 유일한 문장이다』라는 시집입니다. 외로움이나 공허감, 애정결핍에 대하여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경쟁 속에서 메마른 감성이 충전되고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집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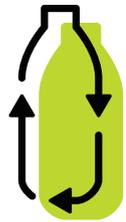
우연찮은 기회에 ‘고마워, 우리 도서관’이라는 이벤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을 후기로 적어내는 이벤트였는데요. 제가 처음 도서관을 이용했던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씩 떠올려보는, 저에게도 나름 추억을 곱씹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응모한 후기가 당첨도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연말에 대형트리에 소망하는 바를 적어서 걸었던, ‘소망트리’ 이벤트도 좋았어요. 자취를 하는 저로서는 연말 분위기 내기가 쉽지 않은데, 도서관 지나갈 때마다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고, 한 해를 갈무리하며 소원을 적어보는 경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딱히 없어서 정말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 말해보라고 하시면, 이번에 도서관 대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대출도서 알람이 변경된 것이 생각 나네요. 지금은 적응이 돼서 남은 대출기한을 ‘부산대학교 도서관’ 어플로 꼬박꼬박 확인을 하는데요. ‘연체 전 푸쉬 알람’기능이 정말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기능을 다시 도입할 수 있으면 “수많은 잠재적 연체자들이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나쁜 쓰레기는 없다.



2015년 코스타리카 해안에서 바다 거북이의 한쪽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채 발견되어 구조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빨대를 빼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생각하며 얼굴을 찡그렸을 것이다. 누가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거북이의 코에 빨대가 박혀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이로 인해 한 유명한 커피 체인점은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선언하였다.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발명된 플라스틱이 이제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호에서는 플라스틱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은 하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재활용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재활용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재활용도시

서울연구소의 '서울연구원 미래서울 연구총서'의 두 번째 책으로서, '재활용도시'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활용의 부가가치를 보다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자원흐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미래도시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이 책은 서울의 쓰레기 배출 실태와 재활용 실태를 먼저 살펴본 후, 재활용의 필요성을 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서울을 '재활용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영 저. 한울. 2013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28.4458 김72ㄷ



생활용품이 광물자원으로 변신한다 생활과 도시광산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8년 일본 동북대학교 선공제련연구소의 미치오 난조 교수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도심속에서 버려진 폐기물에서 필요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광산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도시광산에 대해 그 의미와 자원을 어디에 활용하며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광산의 가치에 대해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고재철 외 저. GS인터비전. 2018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28.4458 생96ㄱ



에코 아티스트 늘봄의 업사이클 리빙 놀이 새활용이 참 좋다

작가는 손재주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응용 가능한 업사이클 리빙 기술 48가지를 소개한다. 기존의 리폼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 무엇보다 넘치는 상상력이 독자를 즐거운 '에코 & 아트 리빙'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또한, 인기 DIY 활용법에 대한 기초 강좌를 따로 묶어 소개했으며, 다양한 생활 쓰레기를 다시 보고, 상상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노하우를 48가지 재활용 작품들에 깊이 있게 녹여냈다.

안혜경 저. 케이퍼낸북스. 2013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ADM 745.5 안94ㄱ



쓰레기통에서 다시 집으로 생명을 되찾은 물건이야기 물건의 재구성

저자는 버려진 물건 안에 이미 형태를 갖고 있거나 부품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조합해 새로운 물건을 탄생시킨다. 그래서 그의 작업에는 '물건의 재구성'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태어나는 순간 버려질 운명을 갖는 물건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물건의 재구성' 과정은 잊어버린 손 감각을 되찾고 물건의 본질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28가지 물건의 재구성 과정을 통해 물건의 과거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연정태 저. 리더스하우스. 2009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28.4458 연73ㄱ



생활은 가벼워지고 삶은 건강해지는 쓰레기 제로 라이프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우리는 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물건에 공간을 내주며 청소하는 데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을까! 저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며,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고,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한 뒤 그 나머지는 썩히기(퇴비화) 시작하면서 쓰레기 제로 집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쓰레기 제로가 어렵지 않으며 간단하고 스트레스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공간에 따라 쓰레기를 줄이는 구체적인 팁을 제시하여 많은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김재영 저. 한울. 2013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28.4458 김72ㄷ



흥미진진하고 사실적인 쓰레기에 대한 모든 고찰 102톤의 물음

이 책은 쓰레기는 어떻게 얼마나 쌓여 왔는지, 그 처리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등 쓰레기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 1부 '우리가 만든 그 과물'은 쓰레기의 실태, 처리의 역사를, 2부 '쓰레기를 쫓는 사람들'은 쓰레기의 기기묘묘한 일생, 우리의 잘못된 인식, 매립과 재활용으로 낭비의 면죄부를 받으려는 세태 등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3부 '정상으로의 회귀'는 앞서 보여준 암울한 현실에 다소나마 희망을 주는 사람들과 도시들을 소개함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에드워드 홀츠 저. 낮은산. 2013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28.440973 H921 ㅎ한



부산대학교 단과대학별 대출 순위

BEST



- 이공계열
- 의과계열
- 스포츠과학부

누군가의 생각이 궁금할 때는 그들의 독서목록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며, 전공별 학생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단과대학별 2017년 대출순위 BEST 5를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공계열 · 의과계열 · 스포츠과학부의 대출순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과학대학

- 1위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3
- 2위 고구려 김진명 / 새움 / 2011
- 3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Humanist / 2015
- 4위 신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08
- 5위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 예담 / 2012

생명자원대학

- 1위 土地(토지) 박경리 / 나남 / 2002
- 2위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 Levine, Amir / 랜덤하우스 / 2011
- 3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Humanist / 2015
- 4위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 예담 / 2012
- 5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James, E. L / 시공사 / 2012

의과대학

- 1위 1Q84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동네 / 2009
- 2위 만약은 없다 남궁인 / 문학동네 / 2006
- 3위 천기누설 매일방송. 천기누설 제작팀 / 다온북스 / 2013
- 4위 비뢰도 검류흔 / 청어람 / 2003
- 5위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 한길사 / 1995

간호대학

- 1위 (만화)토지 박경리 / 마로니에북스 / 2007
- 2위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3
- 3위 (시골의사의)아름다운 동행 박경철 / 리더스북 / 2011
- 4위 고백 미나토 가나에 / 비채 / 2009
- 5위 해리포터 시리즈 Rowling, J. K / 문학수첩 / 2000

공과대학

- 1위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2013
- 2위 도쿠가와 이에야스 야마오카 소하치 / 솔 / 2000
- 3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Humanist / 2015
- 4위 고구려 김진명 / 새움 / 2011
- 5위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 예담 / 2012

나노과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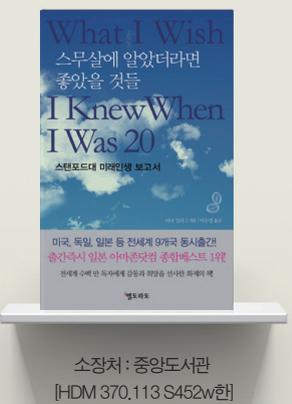
- 1위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 예담 / 2012
- 2위 (새로 만든)만나 이웃나라 이원복 / 김영사 / 2012
- 3위 MEMS의 기초 Liu, Chang / 한타미디어 / 2009
- 4위 (박시백의)조선왕조실록 박시백 / Humanist / 2015
- 5위 (중달의) 일반 화학 박영서 / 동명사 / 2014

약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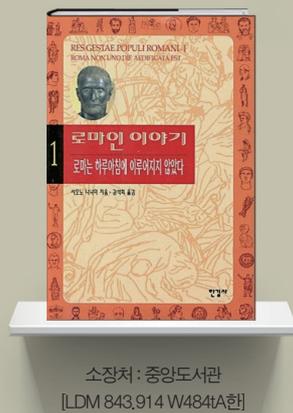
- 1위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 한길사 / 1995
- 2위 이오덕 일기 이오덕 / 양철북 / 2013
- 3위 피를 마시는 새 이영도 / 황금가지 / 2015
- 4위 (내 손안의 그린테이블)채소 도시락 김수정 / 하서출판사 / 2012
- 5위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이오덕 / 양철북 / 2015

스포츠과학부

- 1위 헬스의 정석 수피 / 한문화 / 2014
- 2위 두렵다 그래도 나는 간다 이지웅 / 책과나무 / 2013
- 3위 (동아시아의)역사 분쟁 송기호 / 솔 / 2007
- 4위 철학을 낳은 위대한 질문들 Blackburn, simon / Human Science / 2012
- 5위 (한 권으로 보는)인물 과학사 송성수 / 북스힐 / 2012



PNUL BEST



단과대학별 각기 다른 인기도서 「제3인류」,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위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각 단과대학별로 인기 있는 도서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순수자연과학분야인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자원대학의 대출 목록을 보면 SF 분야 소설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와 역사소설 분야인 김진명의 『고구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순위에 올라있다.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간호대학의 대출목록을 보면 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논픽션 소설류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스포츠과학부의 대출 목록을 보면 타 단과대학과는 확연히 다른 『헬스의 정석』, 『인물과학사』, 등의 도서가 많이 대출되고 있다.

소설 스테디셀러 강세 :
즐거거리로서의 이야기에 열광하다

지난 42호에서 살펴본 인문계열 단과대학의 대출 순위의 경우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과 박경리의 『토지』같은 대하역사소설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이공계열 단과 대학의 경우 SF같은 빠른 호흡이 특징인 국내외 소설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3인류』, 『1Q84』같은 소설들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듯 상황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소설로,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으로써 독서를 찾아 나서는 이공계열 학부생들의 독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신개념 중고서점을 찾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온 중고서점

중고도서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예전엔 보수동 책방 골목이 떠올랐지만 언젠가부터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등의 온라인 중고서점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 있던 서점들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온라인 서점의 오프라인 중고서점이 있다. 기존의 현책방 개념을 벗어난 신개념 오프라인 중고서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의 중심지에 지점을 늘려가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다. 절판도서부터 국외 도서, DVD, 음반자료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자료, 매장 내 검색서비스, 오픈된 매입가격 등 기존 현책방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에 넓은 공간,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한 새로운 형태의 중고서점이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알라딘 중고서점



들어서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미 사라진 책을 읽는다는 것'이라는 문구가 시선을 끈다. 더 이상 발간되지 않는 절판도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을 주는 이 문구 아래에는 실제로 절판된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다. 곳곳에 놓인 검색대에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원서를 모티브로 한 천정 조명 아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넓은 공간을 빙 둘러 뻗어있는 책과 밝은 조명,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책상 등은 동네 도서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책을 판매한 사람이 남긴 메시지가 있는 '이 책의 다음 독자에게' 코너, 이전 책 소유자의 다른 책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옆집 서재에 있던 책' 코너도 눈에 띈다. 도서의 진열은 '오늘 들어온 책', '고객이 방금 팔고 간 책', '최상품질 중고가격', '출간일 1년 신간', '해시태그 추천서' 등 중고서점의 인기 컬렉션별로 진열되어 있다. 직접 책을 가져가 판매할 수도 있는데 알라딘 중고매장 홈페이지(<http://off.aladin.co.kr/usedstore/wgate.aspx?start=main>)에서 해당 중고매장의 도서 검색이 가능하고 내가 팔고자하는 도서의 매입가격도 알아볼 수 있다.

영업시간 | 09:30~22:00 (설날(음력), 추석 당일 휴무)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트림프월드상가 D동 2층
대표전화 | 1544-2514 (평일 9-18시, 근무시간 외 ARS 안내 이용 가능)



Yes24 중고매장 - 수영점 F1963



중고서점으로선 국내 최대 규모인 600평 공간에 들어선 Yes24 중고매장은 고려제강의 와이어공장을 개조한 복합문화시설 F1963 내에 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월과 오래된 옷셋인쇄기는 시선을 압도한다. 옛 공장의 느낌을 버리지 않은 이 공간에 온라인 중고서점이 들어선 것처럼 매장 내부에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함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와 과거 출판을 위해 쓰였던 기계들이 어우러져 있다. 20만권이 넘는 중고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절판도서, 외국 빈티지북은 물론 음반, DVD, 도서 관련 굿즈 등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공간인 키즈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오랜 인쇄 동판으로 만든 식자 테이블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책을 읽고 즐기기 좋은 넓고 여유로운 공간은 Yes24 중고매장의 가장 큰 이점으로 다가온다. 곳곳에 비치된 검색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 서가를 찾을 수 있고, 현장에서 중고도서를 Yes24에 팔 수도 있다. 중고매장 수영점 F1963 홈페이지 (http://www.yes24.com/Mall/Store/Detail?STORE_CODE=005&CategoryNumber=018)에서 도서 검색은 물론 특별전시, 세일정보, 저자와의 만남, 특강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영업시간 | 11:00~20:00 (주말,공휴일 11:00 ~ 21:00) / 설날(음력), 추석 당일 휴무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23번길 20, YES24중고매장 수영점F1963
대표전화 | 1566-4295

PNUL TIPS

부산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교보문고 도서

10% 할인



우리 도서관은 지난 6월 8일, 부산대 구성원들에게 교보문고 매장 도서 10% 할인 혜택을 주는 「책 읽는 대학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주)교보문고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교보문고의 부산점, 부산센텀점, 해운대바로드림센터점 등 3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서가격의 10% 할인 (일부 도서 제외)을 받을 수 있다. 도서 구입 시 신분증(스마트학생증, 공무원증, 증명사진이 있는 도서관모바일이용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교보문고에서는 도서 위치와 재고를 검색하여 수령할 지점을 선택하고 바로 드림으로 주문하면 매장에서 주문한 도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바로드림 서비스'와 매장 내 찾은 책이 없을 때 10% 할인 또는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pecial Focus

부산대도서관, 교보문고와 도서할인 협약 체결



도서관은 지난 6월 (주)교보문고와 「책 읽는 대학 및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구성원들의 독서역량 개발과 인문 소양 강화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부산대와 지역 서점이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부산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교보문고의 부산점과 부산센텀점, 해운대바로드림센터점 등 3개 오프라인매장에서 도서가격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서 구입 시 신분증(스마트학생증, 공무원증, 증명사진이 있는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을 제시하면 된다.

2018년도 세상의 모든 시학 2학기 개최



도서관은 Poetica in PNU와 공동으로 마음의 시를 통해 세상과 만나 소통을 이루고, 그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시학" 강연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18년도에는 "나 안의

시를 세상으로 보내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2학기에는 국어국문학과 김경연 교수의 "나혜석과 '노라'들 - 여성과 시 그리고 문학의 윤리" 강연을 시작으로 총 4회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은 매달 4째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룸에서 진행된다. 문의 | 기획홍보팀 051-510-1810

도서관 기획전시회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소개,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독서동기를 유발하고, 도서관의 문화 공간적 역할의 확대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소규모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공모전 어택"이라는 주제로 각종 공모전 관련 도서 75종을, "조우(遭遇)"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생들의 작품을 각각 전시하였다.

또 8월에는 김진재 SF 어워드 공모전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SF 관련 도서 및 DVD를 전시하는 "SF를 상상하다" 전시전을 개최하였으며, 특별 전시회로 국내·외 7개국 60여 명의 우수 작가가 참여하고 부산공예가협회(BCAA)가 주최하는 "GOLDEN BOUGH(황금가지)"전을 통해 종이,

나무, 흙, 쇠 등을 이용한 입체 조형 및 설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하여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서관에서 개최되는 기획 전시회는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기획홍보팀 051-510-1309

도서관 이용자 대상 3차 이벤트

도서관은 2018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교내 구성원 중 다독자를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 7월 진행하였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학부생 12명, 대학원생 3명, 교수 3명, 시간강사 3명, 교직원 3명, 총 24명에게 각각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학부생 다독자 1위는 126권을, 대학원생 다독자 1위는 86권을 대출하였다.

한편, 중앙도서관 정보서비스팀에서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대학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내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마워 우리 도서관", "어서와 우리 도서관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도서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 라트비아대학교 도서관 간 교류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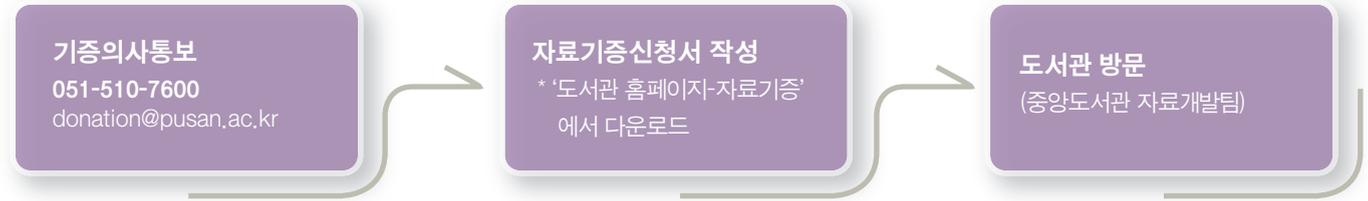
도서관은 지난 2018년 8월 15일, 북유럽 발트 지역 국가인 라트비아의 라트비아대학 도서관과 "국제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 라트비아 양국의 도서 및 간행물 교환과 전시회 개최 △디지털도서관 기술 경험 및 장비에 관한 정보 교환 △도서관 직원 연수를 위한 상호 방문 등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세요



1인 1책 기증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기쁨이 되듯,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됩니다.



개인 소장 자료 기증

교수님 또는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장서를 기증해주시면 도서관 학술정보를 축적하여 나만의 소중한 자료에서 모두의 자산으로 가꾸어 드립니다.



※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개발팀

발간자료 기증

대학 내 기관(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도서관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대학 간행물로 등록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고 국내·외 대학도서관간 상호 자료 교환으로 우리의 지식정보를 대외적으로 알립니다.

